

# 박세리·김미현·장정·위성미 VS 소렌스탐 “결코 물러설 수 없다”

## 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 후보 시즌 마지막 메이저 필승 결의

박세리(29·CJ), 김미현(29·KTF), 장정(26·기업은행), 위성미(17·나이키골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카리 웹(호주).

3일(한국시간) 오후 막을 올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전문가들이 꼽는 우승 후보들이다.

전문가들이 기량면에서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이들은 모두 우승에 대한 강한 의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다만 ‘우승을 하고 싶은 이유’가 제각각이다. 부활에 성공한 박세리는 완벽한 부활을 알리기에는 메이저대회 우승이 제격이라는 생각이다. 이미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우승과 이후 4회 연속 ‘톱10’으로 재기를 확인했지만 소렌스탐, 웹 “3강 체제”의 일환으로 위상을 매기려면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이 요긴하다.

김미현은 아직도 풀어보지 못한 메이저 우승컵이 절실하다. 통산 7승을 수확했고 올해 이미 2승을 거뒀지만 ‘메이저 무관’이라는 꼬리표는 김미현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는 아픔이다.

내년이면 30살이 되는 김미현은 샷과 컨디션이 절정에 올라 있는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컵을 꼭 차지하겠다는 각오다.

장정에게는 이 대회가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이다. 더구나 메이저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한국 선수는 아직 없기에 장정은 두 선배에게 우승컵을 양보할 뜻은 전혀 없다.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도 우승컵이 절박하기는 어느 선수 못지 않다. ‘LPGA 투어 대회 우승도 못하면서 남자 대회 출전에 불두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위성미는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정상에 올라 이런 비난을 잠재우겠다는 각오다.

이들 ‘코리아 4인방’에 맞서는 ‘골프여제’ 소렌스탐은 “내 친구 타이거가 메이저 11승을 했는데 나도 11승을 해야겠다”고 우승에 대한 의욕을 밝혔다.

타이거 우즈와 소렌스탐은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수집할 때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축하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

소렌스탐이 지난 6월 US여자오픈을 제패하면서 메이저 10승을 채우자 우즈는 한 달 뒤 브리티시오픈에서 우승하면서 메이저 11승으로 한발 앞섰다.

“우즈에게 축하 인사와 함께 ‘너를 따라 잡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소렌스탐은 우승에 자신감을 표현했다.

웹은 브리티시여자오픈 최다승 선수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심산이다. 웹은 지금까지 이 대회를 3차례나 우승해 각각 1차례 우승에 그친 소렌스탐과 박세리를 압도하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가 3일 잉글랜드 블랙폴의 로열 리덤 앤드 세인트 앤스 골프링크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여자오픈골프 프로암대회 13번째 무릎까지 차오르는 러프에서 샷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악천후에도 스포츠는 계속 된다 독일 프로 투어 사이클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3일 빗길을 뚫고 제 1구간인 독일 북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빌레펠트 인근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김남일 올스타 인기 ‘짱’

### 팬 투표 25만표 얻어 1위

‘진공 청소기’ 김남일(수원)이 올스타전 팬투표에서 1위를 독주했다.

김남일은 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2006 삼성하우젠 K-리그 올스타전(8월 20일·인천 문학월드컵경기장) 팬투표 3차 중간집계 결과 25만1천974표를 얻어 1,2차 집계와 마찬가지로 1위를 차지했다.

김영광(전남·24만4천633표)과 이천수(울산·24만2천603표)도 순위 변동 없이 2,3위를 지켰다.

또 1,2차 집계 득표 순위와 똑같이 상위 10위권 내에는 2006독일월드컵축구가 끝난 뒤 K-리그에 복귀한 선수가 8명이나 포함된 가

운데 포지션별로도 2차 중간집계 순위와 변동 없이 베스트11이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FC에서 수원 삼성으로 이적한 백지훈(9위·19만999표)이 여전히 9위에 이름을 올렸고 울산 현대의 최성국(6위·21만4천319표), 대전 시티즌에서 수원으로 소속팀을 옮긴 이관우(10위·17만8천492표)는 월드컵 출전 선수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10위 이내에 들었다.

지난달 11일부터 K-리그 홈페이지(www.k-league1.com)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각 구단 홈페이지, 삼성하우젠 홈페이지(www.hauzen.com)를 통해 실시중인 올스타 팬 투표에는 2일 낮 12시까지 32만4천468명이 참가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이형택 3회전 진출

### 메이슨 테니스클래식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한국 남자 테니스의 대들보 이형택(세계랭킹 88위·삼성증권)이 캘리포니아 상위 단계인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에서도 여세를 이어갔다.

이형택은 3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리엄 피츠제럴드 테니스센터에서 벌어진 총상금 60만 달러의 레그 메이슨 테니스클래식 단식 2회전에서 55위의 줄리안 베네티유(프랑스)를 2-0(6-3 6-4)으로 완파하고 3회전에 진출했다.

이형택은 이번 대회 10번 시드를 받고 출전한 베네티유를 맞아 시종 경기를 주도하며 한 세트도 뺏기지 않았다.

## “가족과 함께 해양스포츠 만끽”

### 전국해양레저스포츠 오늘 개막 신안군 우전해수욕장서 3일간

“가족과 함께 해양 스포츠 세계로 품어~”

하얀 백사장과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신안군 중도면 우전해수욕장에서 4일부터 6일까지 ‘제1회 전국해양레저스포츠 대회 & 축제’가 열린다.

신안군이 주최하고 목포대학교 스포츠 산업연구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비치사커 대회(고등부, 일반부)와 바다수영대회(가족부, 일반부), 아쿠아슬론 대회 등 모두 3종목이 진행된다.

토너먼트 형식인 이번 대회는 비치사커대회에 총 35개팀이 출전하고, 전국바다수영대회에는 12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아쿠아슬론대회는 수영(자유형) 1km와 마라톤 3km를 완주해야 한다. 3종목 모두 1~3위까지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축제를 겸한 가족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는 것.

가족이 팀을 이뤄 수상스키, 바나나보트, 스낵스쿠버다이빙, 제트스키, 땅콩보

트 등 8종류의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여기에 어린이를 위한 물고기잡기, 풍선터트리기 등 다양한 가족 문화이벤트가 열리고 가족 단위로 해변에서 텐트 야영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도 마련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하얀 백사장에서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을 통해 가족 및 동료애를 느끼도록 하는 게 이번 대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골격만방으로 [www.hanboGAGU.com](http://www.hanboGAGU.com)  
 100% 직 접 판매로

**사무용의지 전문생산업체**  
**토치 광주총판**  
 TORCH  
 신부스피너, 정제인기  
 100% 직 접 판매로

**제일모직 outlet** 전대일구 사거리  
 제일모직 본사 특송상품만 취급  
 특가품 1점 가격으로 2점 혜택  
**60~40% 할인**